오래된 담벼락에 꽃·병아리 그림… 마을에 웃음소리 커졌어요

벽화로 월산동 달팽이 마을에 새 숨 불어넣는 광주 작가들

남구청, 도시기반시설 사업…작가 10명 한달간 작업
마을 변신에 주민들 호응…간식 챙기고 아이디어 제공도

광주 월산동 달팽이 마을은 벽화로 새단장이 한창이다. 왼쪽부터 이인성·고마음·김은애·최정아 작가, 안동주 달팽이 마을 주민협의체 위원장, 윤진영·손연우·백상옥 작가.

아파트 건설이 한창인 광주시 남구 월산동 재개발 구역 옆에는 200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달팽이 마을'이 있다. 양동시장과 함께 터를 잡은 이 마을은 애초 부촌이었으나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이젠 전체 주민의 5분의 4 정도가 60세 이상 노년이다. 최근 주민들은 '느릿느릿 걸어가자'는 소망을 담아 마을 이름을 '달뫼'에서 '달팽이'로 바꿨다.

19일 오전 찾아간 달팽이 마을은 알록달록한 벽화로 봄 단장을 하고 있었다. 광주 작가 10명은 이달 초부터 마을 담벼락에 벽화 작업을 하고 있다. 남구청이 도시기반시설 사업을 위해 이들 작가에게 손을 내밀었기 때문이다.

모두 벽화작업을 하느라 분주한데, 윤진영(35) 작가와 이 마을 터줏대감 김상축(84)씨의 대화에 눈과 귀가 쏠렸다.

"할아버지 담벼락에 글귀를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매화나 국화 같은 사군자(四君子)가 좋아. 아님 엄마 닭을 따라가는 병아리들은 어떨까?" "이야. 역시 할아버지는 센스가 있으셔."

얼핏 손녀와 할아버지의 대화로 들리지만 2주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는 윤 작가를 원수 보듯 대했다. 마을 코앞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는 마당에 벽화 작업까지 하면 마을이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염려해서다.

"처음에는 거의 모든 주민이 벽화 그리기를 반대했어요. 그럴 수록 더 예의 바르게 어르신을 대하고 벽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려 노력했죠. 점차 마음이 풀린 어르신들은 저희에게 간식을 챙겨주기도 해요. 외람되지만 어르신들이 오전 8시부터 우리들 작업을 구경하시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우신지 몰라요."

윤 작가는 마치 자신이 사는 동네를 거닐듯 마을을 소개했다. 무심코 지나쳤을 회색 골목 곳곳에는 이제 꽃나무와 꿈꾸는 소녀, 귀여운 동물들, 놀이공원 등이 자리했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가보니 달팽이 마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은 가로 60m·세로 4m 규모의 벽화도 눈에 띄었다.

마을 한 바퀴를 다 돌 무렵 달팽이 마을 주민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동주(73)씨의 집에 들렀다. 그는 자신의 집 담벼락에 큼지막하게 담긴 강강술래 그림을 썩 마음에 들어했다.

"마을이 침체되면서 주민이 함께 웃을 일이 없었는데 벽화 작업이 시작되고 공통의 이야깃거리가 생겼어요. 마을의 풍요와 화합의 의미를 다지고자 강강술래 그림을 그려달라고 윤 작가에게 부탁했어요."

윤 작가는 마을벽화에 남다른 애정을 쏟고 있다. 동구 운림동, 남구 사직동, 서울, 충북 옥천군 등의 마을벽화가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다. 조선대 미대를 졸업한 윤 작가는 서울에서 활동한 뒤 고향인 광주로 돌아와 윤진미디어랩을 운영하며 디자인·전시 기획 등을 하고 있다.

"마을 벽화의 매력은 주민으로부터 바로 반응이 온다는 것이에요. 주민과 티격태격하는 경우는 더러 있지만 막상 벽화 작업을 시작하면 그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 붓 끝에서 탈바꿈한 모습을 보면 쌓였던 피로가 눈 녹 듯이 사라져요."

윤 작가는 주민의 넉넉한 마음에 화답하기 위해 마을 현판을 만들어 기증했다. 그는 이달까지 큰 벽화 작업을 마무리한 뒤 다음 달 초 벽화 그리기 봉사에 나서는 청년들을 도울 예정이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조선대-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자원봉사 협약

조선대학교(총장직무대리 홍성금) 외국어대학(학장 조희무)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19일 조직위원회 3층 브리핑룸에서 '대회 자원봉사자 운영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다.
〈세계수영선수권 조직위 제공〉

상이군경회, 보훈복지문화대 광주캠퍼스 입학식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지부장 김점수)는 최근 광주보훈회관에서 보훈복지문화대학 광주캠퍼스 회원 170여명과 함께 제7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주시지부 제공〉

사회 불합리와 '불편한 동행' 15년

김정호 변호사 에세이 출간…전두환 회고록 소송 등 뒷이야기

'전두환 회고록' 소송을 이끈 김정호 변호사(46·연수원 33기)가 지난 15년간 공익 변호를 하며 느낀 이야기를 에세이로 풀어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으로 활동 중인 김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사건, 국정원 댓글 모해위증 사건, 한상률 국세청장 명예훼손 사건, 미쓰비시 여자근로정신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한국사회를 뒤흔든 사건들의 공익 변호를 맡았다.

김 변호사가 펴낸 '불편한 동행'에는 자신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쓴 칼럼 58편과 자신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는 이들의 글 17편이 담겨 있다.

책은 총 6부로 구성돼 있으며 제1부 성찰과 소통에는 저자의 삶의 가치인 '진정성'을 다룬 이야기가, 제2부 변론경험담에는 전두환 회고록 민사소송 등 그동안 맡은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제3부 영화와 인생에서는 영화를 통해 현실을 돌아보게 하고 제4부 법과 사회에 대한 성찰에서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정의와 법의 관계를 말했다. 제5부 여행과 책을 통한 소통에서는 만리장성 기행문과 유시민 작가의 저서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서평을 통해 정의로운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6부 아름다운 동행에는 저자의 '불편한 동행'에 기꺼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저자는 광주에서 민변 지부장으로 활동하며 부당한 권력에 맞선 용기 있는 소수자들을 변호해온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다.

때로는 두려워하고 적당히 타협하려 한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적도 있지만 결국 '정의가 몸에 배면 어떤 순간에도 정의를 따른다!'는 단순한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그렸다.

또, 지탄받는 사건의 피의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들과 불편한 동행은 변호사의 숙명'이라며 변호사로서의 가치관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삶은 언제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일 수만은 없다. 때로는 진정성과 공감능력을 지키기 위해 불편함과의 동행을 감수해야 한다"며 "변호사는 누군가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불합리함과 이웃의 억울함에 맞서서 불편한 동행을 지속해야 할 존재라는 소신을 에세이에 담았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 춘계학회 22일 광주 DJ센터

2019년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회장 정명호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사진) 춘계학회가 지역에서는 최초로 22일 광주에서 열린다.

한국중재의료기기학회는 지난 2013년 발족해 의료용 스텐트에 관한 학문과 산업발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산학연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다학제 학회이며, 정회원은 800여명에 달한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학회는 전국 주요 의과대학, 대학병원, 기술개발원, 연구소에서 관련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올해가 국내 가장 큰 연구과제 중 하나인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의 준비 원년인 만큼 학회 개최 의미가 더욱 크다. 임상 및 기초의학, 공학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연제 발표함으로써 의료기기 연구 활성화에 새로운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재의료기기와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주요 주제로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기기 ▲구조적 심장 및 혈관 질환에서 의료기기 치료의 현재와 미래 ▲소화기 진단 및 치료 중재의료기기의 국산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21일 화순서 세계 물의 날 행사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도지부(회장 이송자·사진)는 세계 물의 날(3월22일)을 맞아 오는 21일 기념행사를 연다.

이날 화순군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만연홀에서 열리는 행사 주제는 '물,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이다. 전남지역 여성 200여 명이 참여해 물 오염 예방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또 최등호 한국수자원공사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물 사랑 10대 수칙 및 실천 결의문'을 채택한다. 문의 061-371-0740.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개그우먼 박나래, 목포 홍보대사

목포시는 19일 개그우먼 박나래씨에게 목포시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는 박 씨가 이미 여러 매체에서 목포의 딸로 불리고 있고, 유쾌한 이미지가 문화예술의 도시인 관광도시 목포의 이미지에 가장 적합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해상케이블카 개통, 맛의 도시 선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제1회 섬의 날 개최 등을 준비중인 목포시는 박 씨의 홍보대사 활동으로 지역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3 FAX 062-222-4938, 222-4918

종친회

▲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지원장 이달우) 광주·전남 지원 여성이화월례회(회장 이보희)=22일(금) 오전 11시 지원회의실 062-225-5636.

▲진주정씨 돈목회(회장 정형민) 정기총회=23일(토) 오전 10시 30분 함평균 월야면 돈목회관.

▲진주정씨 고창종친회(회장 정금렬) 정기총회=28일(목) 오전 10시 고창읍 성두리 태흥뷔페 063-564-2147.

▲진주정씨 진양군 충장공파(회장 정익주) 대종회 정기총회=30일(토) 오전 11시 함평군 월야면 돈목회관.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한 고통.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음건강주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례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석식제공 등 제공 062-522-9976.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 ~ 오후 5시 061-285-1161.

▲화순 효사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화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061-373-8865.

모집

▲국가무형유산 각설이품바·타령장구·엿가위춤 등 수강생 모집(강사 각설이·연희놀이전수자 최연홍)=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 수업(4월 개강), 광주 금남로 4가역 인근 파랑새소극장 010-3620-4341.

▲모다인패션디자인학원 국비지원·일반 교육생 모집=패션의류제작·양장기능사자격증·패션디자인·패션일러스트레이션·패션CAD 062-234-5300.

▲광주불교문화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31일까지 모집, 대학(기초교리):매주 화요일 오후 2시·7시, 대학원(경전공부):매주 수요일 오후 2시·7시, (사)광주불교교육원 사무국 062-228-9098

▲한국범죄방지지도사 자격증 무료 취득=성별, 연령 제한 없음. 동구 금남로 5가 169번길 호남본부. 062-515-75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 062-351-1206.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

부음

▲오태술씨 별세, 상혁·윤경·희경씨 부친상, 조기현·허영철씨 빙부상, 김용희씨 남편상, 발인 20일(수) 오전 8시 30분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본관 3층 특10호 故전성순 님(여/82세)
子/子婦 : 김종빈/전미혜, 원빈
女/壻: 김영숙/김병찬, 안숙/송운종, 희숙/서현상 미성/양광식
◇입관 : 3/19 09:00 ◇발인 : 3/20 10:00
◇장지 : 벌교읍선영[화] ◇연락처 : 250-4410

본관 2층 특9호 故안부덕 님(여/84세)
子/子婦 : 한상원/이경숙, 홍구/라정숙, 삼채/오길자, 상문/차종화, 상돈/김옥자
女/壻: 한미영/정경원
◇입관 : 3/19 10:00 ◇발인 : 3/20 09:00
◇장지 : 영락공원[화] ◇연락처 : 250-4409

본관 3층 특12호 故김동수 님(남/83세)
子/子婦 : 김경수/이연례, 병수/최미경
女/壻: 김영숙/김종현, 영희/구해주
未亡人:김정자
◇입관 : 3/20 13:00 ◇발인 : 3/21 08:00
◇장지 : 순창읍선영[화] ◇연락처 : 250-4412

본관 3층 특301호 故강명자 님(여/82세)
子 : 김한수, 복수
女/壻: 김향미/정찬만
未亡人:김해동
◇입관 : 3/20 11:00 ◇발인 : 3/21 09:00
◇장지 : 곡성입면선영[매] ◇연락처 : 250-4471

본관 2층 특7호 故민병훈 님(남/54세)
子 : 민혁
女 : 민보경, 주인
未亡人: 김미애
◇입관 : 3/20 00:00 ◇발인 : 3/21 08:00
◇장지 : 미정[화] ◇연락처 : 250-4407

장례문화의 전당
그린장례식장
회장 김 영 관
24시 대기
062·250·4455
www.그린장례식장.co.kr